

고유가·고환율·글로벌 제재 가속화 韓, 반도체·석화 등 주요산업 '비상'

중동·지정학적 리스크

항공, 해운업계 등 위기감 고조
"상황 예의주시... 장기화시 타격"

이란·이스라엘, 전면전 자제 방침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장기화와 이란·이스라엘 전쟁 위기 확산으로 국내 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를 비롯해 항공, 해운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태로 당장 영향을 받기보다 장기화 될 경우 실적 회복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당장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면전을 자제한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중동 정세 리스크 심화로 국제유가와 환율은 빠르게 상승하며 우리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16일 산업계에 따르면 국제 유가 변동에 민감한 항공과 해운 업계는 당장 영향은 없지만 중동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항공업계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럽 등 노선 운항에는 크게 부담을 갖지 않지만 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유가 상승은

항공사 실적에 영향을 주는 항공유 인상으로 연결된다. 여기에 유가 상승이 유류비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여행객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 이후 회복된 여행 수요가 중동 사태 장기화로 또다시 침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가 영향을 받지만 아직까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며 "유가와 환율 상승 기조가 장기화 될 경우 여객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공업계 부담은 확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쟁 확산으로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운항 차질 및 운임이 오를 수 있어서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내 해운사 HMM 이 컨테이너선을 운항중인 곳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증가도 이어질 수 있다. 해운업계는 통상적으로 지출의 10~25%를 연료비로 사용한다. 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급증할 경우 실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유가 상승은 해운업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사용하는 산업 전체로 부담이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가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정

유·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태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국제유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의 경우 유가 상승은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화될 경우 석유 제품 수요 약화와 정체마진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석유화학업계도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석유를 베이스로 하는 기초연료인 나프타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주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에 대한 공습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15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는 25센트(0.3%) 하락한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금융센터 정형민 세계경제분석실장은 "WTI 가격이 주말 이란의 공격에 따른 충격 진정 및 국제사회의 확전 자제 촉구 등으로 소폭하락했다"면서 "다만 향후 이스라엘의 대응 및 사태 방향에 따른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르노코리아는 지난 15일 부산 공장에서 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좌측부터) 민광제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 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 정경훈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르노코리아, 노사간담회 개최

"부산공장, 내년부터 폴스타4 전기차 생산"

이정식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참여

올해 신차 출시를 기점으로 실적 부진을 예고한 르노코리아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들이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노사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노사간담회에는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을 비롯한 르노코리아 임원진, 김동석 르노코리아 노조위원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동차 산업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모범적 노사 관계 구축 및 이에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

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간담회에서 "르노코리아는 'Born French, Made in Korea'를 토대로 여러 협력업체들과 함께 부산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며 "오는 6월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공개할 새로운 중형 하이브리드 SUV를 비롯해 다양한 신차를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후반에는 폴스타4 전기차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부산공장에서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하나의 라인에서 최대 8종까지 혼류 생산이 가능한 부산공장의 생산 유연성은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조합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기아, 유럽에 '오피짓 유나이티드' 전한다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24

지난해 이어 두 번째 단독 전시
5개 공간 기획... 디자인 철학 공유

기아가 글로벌 최대 디자인 축제에 참가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피짓 유나이티드(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를 알린다.

기아는 '2024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 참가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단독 전시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아는 푸오리살로네에 참가해 이탈리아 밀라노 중심부에 위치한 아트 갤러리 '뮤제오 델라 페르마네펀테'에서 단독으로 상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시장은 로비에서 메인 전시 공간까지 총 5개의 공간으로 기획됐다. 기아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 중인 4명의 아



기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 전시 공간

티스트들과 협업, 오피짓 유나이티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진행하고 이를 작품으로 표현해 공간을 채웠다.

다양한 배경의 작가들이 제시하는 창의적 접근은 오피짓 유나이티드 개념을 확장하는 동시에 차이점마저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상시 전시뿐 아니라 디자인을 주제로 포럼, 공연 등 다채로운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전시장 2층에 준비된 무대에서는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 부사장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가 매일 저녁 포럼을 통해 세계 각국의 고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전시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아티스트들의 창의력을 집약한 전시"라며 "우리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보다는 창의적인 문화 형성을 위한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기아의 담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현대차·기아, '에코마일리지' 서비스 지원

거리 입력 등 절차 대폭 간소화

현대자동차·기아 고객이 편리하게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기아는 커넥티드 카 서비스 기반의 차량 운행 정보와 서울시 승용차용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연동해 주행거리 입력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시범운행 을 통해 안전운전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는 서울시의 대표 친환경 정책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아끼거나 온실가스를

줄인 만큼 마일리지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지방세 납부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대차·기아와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는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운전자에게 추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차·기아의 드라이빙 인사이트 연동으로 현대차·기아 고객에게 최초로 제공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 시범 운영

LG전자 협력... 협동로봇 활용

두산로보틱스가 LG전자와 함께 협동로봇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에 대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1일 서울시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와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 시범 운영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시범 운영에 들

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전기차 자동 충전 솔루션은 LG전자의 100KW 급속 전기차 충전기에 두산로보틱스 협동로봇을 접목한 시스템이다.

이 솔루션은 차량 인식 및 정산을 위한 키오스크와 자동 충전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자가 전기를 충전 가능 구역에 주차하면 별도 설치된 카

메라가 차량 관련 정보를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운전자는 인증을 완료한다. 이어 협동로봇에 부착한 인공지능(AI) 기반의 3D 비전 카메라가 전기차 충전구 위치를 파악하고, 협동로봇이 전기차 충전구에 충전 케이블을 체결해 충전을 시작한다.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기를 충전구에서 탈거해 원위치시키고, 자동 결제가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고객·주주 소통 강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고객·주주들과의 소통 창구인 '뉴스매거진'을 공식 오픈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존 사내 웹진을 사외 채널로 확대 개편하면서 회사 소식을 투명하게 알려 이해관계자 들로부터 신뢰받는 회사가 되겠다는 취지다.

뉴스매거진은 ▲국내외 언론사에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프

레스' ▲보도자료 외 80여 개 글로벌네트워킹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식을 모은 '인사이드뉴스' ▲분야별 전문가들의 글을 볼 수 있는 '비즈니스스토리' ▲기업 문화를 소개하는 '컬처' 등 4가지 코너로 구성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뉴스매거진 신설과 함께 공식 홈페이지도 리뉴얼했다. 가독성을 높인 디자인과 2030세대 눈높이에 맞춘 감각적인 레이아웃을 적용해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개선했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포스코인터내셔널, '뉴스매거진' 오픈